

2021년 4분기 중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회의록

중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2021년 4분기 정기회의			
일 시	2021년 12월 13일(월) 15시 00분	장 소	3층 대강당
참석자	참석 9명 : 이**, 장**, 서**, 김**, 박**, 유**, 이**, 신**, 현** 간사 1명 : 이** 배석 4명 : 중구시설관리공단 사회서비스사업단 2명(부장 김**, 팀장 전**) 중립종합사회복지관 부서장 3명(부장 문**, 팀장 박**, 노**)		
안 건	1. 전차(2021년 3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록 보고 2. 2021년 4분기 사업보고, 2021년 3차 추가경정예산 보고 3. 2022년 주요사업보고, 2022년 본예산 보고 4. 기타 보고		
회의내용	<p>○ 운영위원회 개회 선언</p> <p>- 중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14명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 성립 보고하다.</p> <p>○ 운영위원회 안건 회의</p> <p>1. 전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보고 및 승인</p> <p>- 전차(2021년 3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록 보고하다.</p> <p>- 이** 위원 : 전차 회의록에서 통합나들이 등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4분기 사업보고를 통해 추가적인 설명 드리겠음. 중구청 드림하티 사업 지원 규모와 관련하여 중구청 담당과와 소통하였고,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이 종료 되는 2022년 2월 이후에 신규사업 계획 진행될 예정이라고 함. 이후 드림하티 연계 논의하겠음.</p> <p>- 1호 안건 참석위원 전원 동의로 승인한다.</p> <p>2. 2021년 4분기 사업보고, 3차 추가경정예산 보고</p> <p>- 2021년 4분기 사업보고, 3차 추가경정예산 보고하다.</p> <p>- 유** 위원 :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후원기업 등이 감소하며 후원금수입이 감소하였는데, 사업 운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가?</p> <p>- 이** 간사 : 3분기 2차 추가경정 진행하며 일부 후원금 삭감하였고, 4분기 계획되었던 중구청 드림하티 연계, 기업 등의 후원연계 축소 예상하에 예산규모를 조정하였다. 실제 후원금이 줄어든 부분은 후원품 확보하고 자부담 확대편성하여 사업 보완 진행하였다.</p> <p>- 이** 위원장 : 영양더하기 사업에 대한 설명 요청 드린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위원 : 영양더하기 사업은 중구 공로수당 지원을 대체하는 사업이다. 10월 1일자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중구 차원에서 8월~9월부터 해당 주민에게 설문조사 진행하였다. 설문시 영양 상태를 점수화하였고 점수 정도에 따라 서비스군을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전산화 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올해는 이용자에게 안내문을 제공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 같고, 실제 사업수행은 2022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서비스 내용은 음식점, 정육점, 슈퍼마켓에서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 위원장 : 이용자를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 신** 위원 : 기초연금 받는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하였고, 이분들 모두 서비스 대상자가 된다. 점수를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 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기존 공로수당 지원 주민은 모두 영양더하기사업 지원 받을 예정이다. 설문 문항은 영양수준을 확인하고 판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 이** 위원장 : 점수화 하여 서비스 대상군을 나누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누락되거나 사각지대 주민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선발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주민을 발굴 할 수 있을 것이다. - 신** 위원 : 실제 진행하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이 발견되고 있다. 우선 설문조사 내용을 기준으로 보고 집중관리 명단을 공유하며 2022년부터 방문상담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 장** 위원 :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 제대로 답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다. - 신** 위원 : 구청에서 공유 받은 명단 활용하여 복지관에서 직접 만나보고 서비스 수준을 판단할 예정이다. - 이** 위원장 : 직접 만나보고 실질적으로 누락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 신** 위원 : 지역주민 중, 케어가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되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뢰를 요청 드린다. - 이** 위원 : 부연설명 드리면 신규 인력으로 영양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채용되었고 2,000여명의 대상자가 있다. 주민들을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중점관리군, 잠재적 관리군, 서비스제공 군으로 분류되어 있다. 중점관리군 주민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와 대부분 겹칠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중복되는 인원은 10퍼센트 정도이다. 업무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은 있으나, 이는 영양더하기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기관에서 고민하고 있어 중구청 담당과와 실무 협의 진행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반영하여 함께 논의하겠다. - 장** 위원 : 지역사회에서 받는 사람들만 계속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모두 찾아내기에는 인력이 부족할 것 같다. 이로 인해 사각지대 취약주민들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 염려스럽다. - 서** 위원 : 지역사회에서 이런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된다. 동네나눔밥집에 참여하면서 지원받는 주민들이 확대되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
--

었다. 동네나눔밥집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영양더하기사업은 중구 어르신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중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오히려 젊은 사람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보기도 한다. 지원 받는 사람만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각지대에서 지원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찾아서 케어해주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관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일 것이다.

- 유** 위원 : 만약 이런 문제가 지속된다면, 서비스를 시작할 때 서약서 등에 조건을 공지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사업 취지에 맞게 서비스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일종의 부정 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이** 위원장 : 관련 기관에서는 최대한 밀접하게 주민들을 만나고 선별했으면 좋겠다.

- 2호 안건 참석위원 전원 동의로 승인한다.

3. 2022년 주요사업 보고, 2022년 본예산 보고

- 2022년 주요사업 보고, 2022년 본예산 보고하다.

- 유** 위원 : 2022년 중장년층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진촬영 및 인터뷰 프로그램의 목적은 무엇인가? 참여하는 중장년층이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또 하나는 예산 상담치료 분야가 축소되었는데, 상담치료 욕구가 많을 것인데, 예산 감액한 이유는 무엇인가?

- 신** 위원 : 현재 지역사회에서 중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복지관에서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남대문쪽방에 거주하는 50대 이상의 주민들이 참여 대상이다. 현재 남대문쪽방 지역이 재개발될 예정이라 마을 기록을 위한 사진촬영과 인터뷰를 계획하고 있다. 주민들이 살았던 곳, 활동했던 지역을 주민들이 직접 찍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 간사 : 올해 상담치료는 미술치료, 놀이치료, 언어치료가 운영되었으나, 미술치료·놀이치료는 수요 등 축소되어 올해 사업을 종료하였다. 차년도에는 언어치료만 유지할 예정이다.

- 이** 위원장 : 시도보조금 예산이 2억원인데, 현재 중구민과 타구민의 복지관 이용 기준을 달리하지는 않는가?

- 이** 위원 : 현재 복지관에서는 중구민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늘품학습센터에서 타구민에게 일부 열려있고, 이외에는 중구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중구민과 타구민 비율은 3:7이다. 중구민 이용률을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차년도까지는 이 비율을 유지하고자 한다. 서울시특별보조금은 증액되어 8000만원 지원받을 예정이다. 중구에서는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시 정수시설로 편입되어 시에서 운영지원 받을 예정이고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여전히 정수의 시설

로 구비로 운영지원 받을 예정이다. 회현동 남대문쪽방지역에 개발이 진행될 경우, 복지관이 신설될 예정이고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논의가 구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 이** 위원장 : 복지관 운영에서 중구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타구민 이용비율이 높다면 중구민의 경우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지원 받는다면 지역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게 맞지만, 현재는 중구민과 타구민 이용에 대한 일부 기준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 서** 위원 : 동네나눔밥집은 차년도에도 다시 추진되는 것 같은데, 올해 이 사업에 참여하다보니 다소 불미스러운 상황들이 있었다. 일부 주민이 쿠폰을 가게와 협의하여 현금화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차년도에는 이런 부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소상공인들에게도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기를 바란다.

- 이** 위원 : 해당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 파악하고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 쿠폰사용 수칙 준수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전달하고 낙인감 없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 해당 소상공인들에게도 사용수칙을 공유하며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 신** 위원 : 영양더하기 사업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을 것이다. 현금성을 가진 사업들의 한계점이라고 생각한다. 서비스 제공 시점에 서약서를 받고 환수조항을 삽입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

- 3호 안건 참석위원 전원 동의로 승인한다.

4. 기타 안건

- 기타 안건 발의 후,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묻다.

- 이** 위원장 : 운영법인이 중구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된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이전 운영과 현재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이전 운영위원회에는 구시의원 뿐 아니라 구청 등 공공기관 위원들도 꼭 참석했었는데, 최근에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복지관이 심도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에서 관심가지고 지원해주면 좋겠다. 특히 복지관이 민간주체에서 공공주체로 넘어갔을 때,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것 같다. 그 기대에 맞춰 합당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등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 장** 위원 : 이 지역의 상황은 복지관과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복지관과 운영위원들이 안건을 올렸을 때 심도 있는 논의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 유** 위원 : 복지관은 공공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복지관에서의 서비스는 창의성이 중요한데, 열린 생각을 가지고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만 한다. 이를 중구시설관리공단과 북

지관, 운영위원들이 잘 알고 전문성 있고 창의적이며 이용자 입장에서 복지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복지관의 자발성과 창의성이 꺾이면 좋은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 4호 기타 안건 참석위원 전원 동의로 승인한다.

○ **폐회선언**

- 운영위원회의 참석 및 다양한 의견제시에 대한 감사와 함께 운영위원회의 폐회선언하다.